



4일 가주 징용배상 특별법 항소심이 끝난 후 원고인 정재원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신혜원 변호사(오른쪽서 두번째) 등 변호인단과 가주 항소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다이헤이오 시멘트 상대 정재원씨 징용피해 항소심 열려

재판결과 90일내 나올듯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와 일본의 다이헤이오(구 오노다) 시멘트간의 항소심이 4일 오후1시30분 가주 항소법원(2지구 A)에서 열렸다.

가주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트 법·2차대전 피해자들이 오는 2010년까지 전범국가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 이날 재판에서 다이헤이오측 변호인단은 특별법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간의 과거사는 청산됐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단은 특별법은 새로운 법이 아닌 임금법의 연장이며 정씨의 경우 개인과 사기업간의 소송으로 한일기본조약이 개인의 청구보상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결과는 앞으로 90일 이내 결정되며, 패소하는 측은 가주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어서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정 기자